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5호 [루게 제2661호]

주체 110
(2021)년 8월
28일
토요일
음력 7월 21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사설

온 겨레는 반전평화수호를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자

남조선에서 내외의 강력한 요구와 성토를 외면하고 외세와의 야합밑에 끝끝내 강행하던 합동군사연습이 일단 막을 내리었다.

하지만 군사연습이 끝났다고 하여 군사적긴장과 전쟁위험이 가세된 것이 아니며 평화가 도래한 것은 더욱 아니다.

그 무슨 규모의 축소나 형식의 변경이 결코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성격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은 자라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철두철미 동족을 목표로 하고 주변나라들도 경계하는 위협적인 전쟁소동인것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도 폭염을 무릅쓰고 《합동군사연습중단》, 《전쟁연습반대》, 《평화수호》를 퍼뜨리게 웨치며 투쟁에 떨쳐나섰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은 아직까지도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방어적》인것으로 분칠하며 저들의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행동을 정당화해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남조선에서 이러한 범죄적인 전쟁연습은 해마다 오늘에 와서 처음 벌어졌던 것이 아니다.

수십년전부터 이러한 전쟁연습은 해마다 벌어져왔고 그때마다 《방어적》으로 묘사했지만 그러한 꾀변으로 화약내를 질게 풍기는 연습의 침략성을 가리울수 없었다. 그리고 연습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동족사이의 갈등과 불신의 골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과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것으로 이어져왔다. 이처럼 대결과 긴장격화의 악순환이 세기를 이어 되풀이되어왔는데 오늘에 와서 연습의 규모를 조금 축소했다고 해서 동족을 겨누고 하는 공격적, 침략적성격이 달라지는것은 아니다.

내외호전세력이 《방어적》이라고 계속 떠드는것은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팔자로 하는 작전계획과 그 실행준비를 완비하기 위한 전쟁연습, 핵전쟁예비연습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벌려나가겠다는 음흉하고도 로골적인 강변이 아닐수 없다.

이번 연습은 끝났지만 평화를 위협하는 또 어떤 전쟁연습 핏줄이 어느 시각에 울릴지 알수 없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해결하여야 할 근본문제, 급선무는 바로 이 땅의 평화와 겨레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세의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끝장내는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근원적으로 가시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자면 남조선강점 미군을 하루빨리 철수시켜야 한다.

지나온 력사와 오늘의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남조선강점 미군은 평화의 암적존재이고 이 땅

에 함시적으로 긴장격화와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화근으로 되고있다.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지배하려는 범죄적인 목적으로 부러 세기를 이어 지속되고있는 미군의 남조선강점과 전쟁행동때문에 조선반도에서는 언제 한번 평화와 안정이 깃들지 않았으며 우리 겨레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함시적인 불안과 고통속에 살아오고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이야말로 전쟁의 온상이다.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온 겨레는 평화의 암적존재인 남조선강점 미군을 하루빨리 철수시키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반전평화수호투쟁의 불길은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우리 민족 자신의 생존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위업이며 그 막중한 시대적과제를 해결할 증인도 다른 누가 아닌 우리 겨레의 어깨 위에 지워져있다.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우리 민족을 대신하여 다른 누가 지켜줄수 없다.

이번에도 남조선의 여러 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 해외동포들이 정세를 끊임없이 악화시키는 범죄적인 합동전쟁연습의 증거를 요구

하여 항의집회를 하고 시위들도 연일 벌리었다. 자기 손으로 평화로운 삶을 쟁취하며 평화와 통일의 밝은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한 이러한 의로운 투쟁들은 앞으로도 계속되고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민족을 사랑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온 겨레가 반전평화수호의 기치밑에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욱 드높일 때 내외호전세력의 전쟁책동도 맥을 추지 못하게 될것이다.

평화, 아름다우면서도 숭엄함이 깃든 소중한 부름이다.

오늘 우리 겨레처럼 평화에 대한 절절한 념원과 격렬한 정신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민족도 드물것이다.

세계에 대한 패권야망으로 꿈틀거리는 외세의 전쟁연습, 전쟁소동도 평화에로 향한 우리 겨레의 강한 정신과 힘을 절대로 억누를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단결된 힘으로 침략적인 전쟁연습, 전쟁소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그 어떤 위협도 기웃거리지 못하고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공고한 평화를 기어이 이룩하여야 한다.

후대들에게 자유롭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삼천리조선반도를 물려주자면 우리 세대가 더욱 분발해야 할 오늘이다.

청년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조선

《김일성주석께서는

는 일찌기 청년들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전진시키는 혁명투쟁의 선봉대, 주력부대로 내세우시고 항일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워 조선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었다.

조선청년들은 항일의 고귀한 전통을 이어 새 조선건설과 조국방위전쟁, 전후 사회주의건설에서 후비의 용감성과 희생정신을 발휘하였다.

국제사회는 사회주의조선의 영예로운 수호자, 강국건설의 척후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조선청년들이 오늘도 레일도 영원히 나라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쳐가리라는 것을 확신하고있다.》(김보자국가 라디오방송)

《주체사상에 기초한 청년운동의 전통은 김정일각하에 의해 드팀없이 계승되었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청년들을 사랑하라!》라는 구호를 제시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청년들이 해놓은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면서 그들이 일떠세운 창조물들에 《청년》이라는 이름도 달아주시었다.

김정일각하께서 크나큰 사랑과 믿음으로 후대들을 혁명의 계주봉을 이어받을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시기에 조선의 청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훌륭한 청년들로 자라날수 있었다.》(우간다 전국항쟁운동기관지 《파블리코 렌즈》)

《오늘 조선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숭고한 미래관, 후대관을 그대로 체현하신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아래 청년층을 번합없는 전략적로서으로 들어시키고있다.

조선청년들은 조국보위에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있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 첨단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핵심적역할을 하고있다.

조선혁명의 침로마라 폭풍쳐 내달리는 청년대군이 있어 조선의 위용은 더욱 빛나고있다.》(방글라데시사회주의학생전선)

《조선청년들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며 조선청년운동사에 영광의 자욱을 새겨왔다.

사회주의조선에서 청년들은 조국과 인민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또 한 분의 위인이신 김정은각하를 높이 모신것은 조

국제사회계의 목소리

선청년들에게 있어서 행운으로 된다.

결출한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광명한 미래에로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청년들이 부럽다.》(세계민주청년련맹 전 위원장)

《인적도 없는 심심산골에서 만년언제를 쌓으며 스스로 세운 충훈대학과정에 깨끗한 량심의 집수만을 새겨온 청년들과 부도없는 아이들의 친어머니가 된 《치녀어머니》, 준엄한 정세속에서 조국보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수백만 청년들, 이것이 바로 조선청년들의 참모습이다.

청년들을 진주보석처럼 아끼고 시대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주시는 김정은각하의 사랑의 품이 이런 청년대군을 낳았다.》(영국조선친선협회)

《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혁명적배투와 동지들에 대한 고결한 의리심, 아름다운 도덕품성은 조선청년들의 고유한 특질이다.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청년들의 청신도덕적부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개인주의적 인생관에 물젼은 청년들이 타락과 범죄의 길로 걷고있는 오늘 조선청년들의 숭고한 정신도덕적 품모가 국제사회에 시사해주는 의미는 자못 심오할것이다.

조선이야말로 끝없이 밝은 미래를 가진 청춘의 나라이다.》(로시야 로스도브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본사기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혁명무력에 대한 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61돐 경축 청년 학생들의 무도회 진행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혁명무력에 대한 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61돐 경축 청년 학생들의 무도회가 25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4.25문화회관, 평양체육관 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무도회장들에는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총진군길에서 위대한 강국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뜻깊은 날을 맞이한 청년학생들의 회열과 랑만이 차넘치였다.

노래 《조선의 행운》이 울려 퍼지는 속에 경축의 춤바다가 펼쳐졌다.

위대한 령도의 그날로부터 장구한 기간 주체의 혁명무력건설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청년학생들은 《위대한 선군령장 만 단세》,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등의 노래에 맞추어 춤물결을 일으켜나갔다.

《우리의 김정은동지》, 《인민의 환희》를 비롯한 노래들이 련이어 울려 퍼지는 속에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부강조국건설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의 정이 무도회장들에 뜨겁게 끓어올랐다. 《청춘송가》, 《용해야》 등의 노래에 맞추어 경쾌하고 박력있는 춤물결을 이어가는 참가자들의 얼굴마다

에는 당의 품속에서 영예로운 사회주의건설자로, 위훈창조, 궁정창조, 문명창조의 기수, 미덕과 미풍의 선구자로 보람찬 삶을 수놓아가는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었다.

전세대 청년들이 지녔던 불굴의 조국수호정신과 애국의 전통을 이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빛내어갈 애국청년들의 기상을 담은 노래 《우리의 전

호》, 《사회주의 지키세》는 무도회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이날 각 도소재지들과 시, 군들에서도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가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6차전원회의의 진행

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서기장을 비롯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원회의에 참가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

당 일꾼들이 방청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소집과 도로교통법, 산림법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었다.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5차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일치각결로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산

본사기자

군국주의바탕을 물려주려는 망동

8월은 우리 민족에게 기쁨과 아픔, 치욕과 분노를 되겨주며 각성과 의지를 가다듬게 하는 달이다.

1907년의 조선군대해산도, 《경술국치일》로 기록된 1910년의 《한일합병조약》의 날조도 8월에 일어난 비극들이다.

일제의 40여년간 식민지통치는 1945년 8월 15일 무너지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가 패망하였다고 하여 일본의 령도쟁쟁야망, 군국주의정신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일마진 일본이 그 무슨 어린이용 《방위백서》라는것을 인터넷에 공개한것만 보아도 령도쟁쟁야망에 날뛰다가 《천황》을 위해 《사구라》처럼 《유세》하여 야스구니진자에 물리라고 설교, 강요하려는것인가.

그 《방위백서》라는것이 일제패망의 날인 8.15 다음날에 공개한것으로서 더욱 혐오스럽고 파멸적인 섬나라이다. 과거의 침략전쟁은 아시아나라들을 《해방》하기 위한 《성전》이라고 하면서 《보통국가》로서 그 무엇이나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변변스럽고 음흉한 꾀변이고 망동이 아닐수 없다.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도 아랑곳없이 꿈틀거리려는 일본의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을 철저히 경계하고 더욱더 각성을 높이려고 일깨워주는 8월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새 세대들은 해마다 당국이 벌려놓는 《다께시마의 날》 기념행사 와 제일본조선인들을 대상으로 감행되는 린치, 《북위협》

설에 빙자한 전쟁연습소동을 시도때도 없이 겪고있다.

초, 중학교의 교과서들에도 과거 일제의 일본군성노예문제, 조선인강제징용문제, 《독도령유권》문제 등이 저들의 구미에 맞게 서술되어있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장차 일본의 미래를 이끌고나갈 새 세대들에게 과거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던 조상들처럼 《대동아공영》의 망상으로 령도쟁쟁야망에 날뛰다가 《천황》을 위해 《사구라》처럼 《유세》하여 야스구니진자에 물리라고 설교, 강요하려는것인가.

그 《방위백서》라는것이 일제패망의 날인 8.15 다음날에 공개한것으로서 더욱 혐오스럽고 파멸적인 섬나라이다.

과거의 침략전쟁은 아시아나라들을 《해방》하기 위한 《성전》이라고 하면서 《보통국가》로서 그 무엇이나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변변스럽고 음흉한 꾀변이고 망동이 아닐수 없다.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도 아랑곳없이 꿈틀거리려는 일본의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을 철저히 경계하고 더욱더 각성을 높이려고 일깨워주는 8월이다.

정필

원자탄에 의한 조선인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모임 도표에서 진행

미국의 원자탄에 의해 희생된 재일조선인들을 추모하는 모임이 9일 도표에서 진행되었다.

김익순 총련 니시도쿄본부 위원장, 추수광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사무국장, 리동제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회장, 김진호 《히로시마를 조선인피폭자협회》 리사장을 비롯한 재일동포들과 일본시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발언자들은 과거 일제에 게 랍치되어 일본에 끌려온 동포들이 인간이하의 학대와 멸시, 갖은 고역에 시달리고 더우기는 원자탄폭격으로 헤아릴수 없는 불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민족차별정책으로 동포피해자들은 아직까지도 아무런 사회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있다

고 그들은 밝혔다.

오히려 과거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공화국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극악무도한 적대행위를 집요하게 감행하고 있다고 그들은 규탄하였다.

본사기자

청년강국으로 존엄 떨친다

청년강국, 이것은 세계의 다른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고 오직 조선에서만 들을 수 있는 고귀한 시대어이다. 청년강국은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흔히 보는 범상한 나라가 아니다. 사상과 정신이 건전하고 단결되고 열정에 넘친 청년대군의 무한대의 힘에 의하여 사회가 들끓고 눈부시게 약동하는 나라, 그것으로 하여 전도가 밝고 양양한 나라일 때에야 청년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화국은 청년들이 특별히 강하고 고상한 정신세계를 가진 나라이다. 율해에 홀려온 날과 달을 돌이켜보자. 공화국에서는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가 진행되고 여기에서는 새로운 5개년계획이 작성되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새로운 단계로 이행할것을 결정하였다.

이 역사적인 당대회의 결정을

제일 앞장에서 만들어 실 천해나가고있는 세대가 바로 청년들이다.

당대회이후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사업들이 지극히 훌륭하고 기쁘고 자랑스럽다. 이것은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감동적인 화폭들이다.

율해에 지금까지 신문과 방송으로 전해진 청년들의 탄원소식만 보아도 수 많은 청년들이 중요 공장, 기업소, 탄광과 농촌, 최전선 집조소와 산골마을학교, 사회주의건설전투장으로 달려나갔다.

정든 고향과 일터, 사랑하는 부모형제와 동무들을 뒤에 두고 어렵고 힘든 곳으로 자진하여 진출하는 이런 청년들이 얼마나 미덥고 자랑스러우나.

이뿐이 아니다.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오늘의 전군에서 로력혁신자로, 창의고안의 명수로, 아름다운 미

공의 소유자로 자라날치고있는 사람들도, 조국방선을 철벽으로 지켜가는 병사들도, 세기의 창공높이 공화국기를 휘날려갈 야심만만한 투지를 안고 피라는 훈련을 이어가는 체육인들도 다름아닌 청년들이다.

이 지구상 곳곳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속절없이 시들어가고 범죄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있을 때 조선의 청년들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청년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것이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격찬하는 청년강국의 존엄을 이 하늘아래에 빛나게 새겨주신분이 바로 김정은령도자이다. 그이께서는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때일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든가 하늘같은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그러시고도 그해의 청년절에는 평양

에서 성대한 경축행사로 진행하도록 하시고 현지지도의 길에서 축하분까지 보내주시었다.

언제나 청년들을 믿으시고 그들의 자그마한 성과도 값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사랑속에 청년들의 위훈은 조국청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지고있다.

주제104(2015)년 9월 완공을 앞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높이 솟아오른 1호발전소연계를 여러 곳에서 보아주시고 올려다보면 하늘끝에 닿은 우리 청년들의 기상을 보는것만 같고 멀리서 보면 당중앙을 응위하여 성세, 방패를 이룬 청년대군의 모습을 보는것만 같다고 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이 쌓아올린 인제이기에 그 높이를 결코 측정단위로 잴수 없다고,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연계의 높이는 우리 청년들의 애국심의 높이, 청년강국의 높



단상 <<경루동>> 이들을 《보통강강안다락식주래구》로 명명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룩하신 모범을 찾아주시었다. 그의이께서는 보통강강안지구에 140여일전 모습을 찾아볼수 없는 천지개벽이 일어났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

시하시면서 여기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 자그마한 불면이라도 있을세라 친부모의 심정으로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이곳의 명칭을 아름다운 구슬다락이라는 뜻으로 《경루동》이라고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며 해당 부문에서 이를 심의해볼때 대한 지시를 주시었다.

《경루동》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가. 인민들에게 옥으로 빛을 흠뻑한 집을 안겨주고싶으신 그의이 심정이 그대로 담겨진 이름이다.

예로부터 옥이나 금으로 단장한 집에서는 왕이나 귀족들이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바로 이런 최후의 집이 로동자, 사무원을 비롯한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을 위해 건설되고있었다. 이처럼 복 받은 인민들이 어느 시대, 어느 력사에 있어보

았던가. 옥에는 티가 있을지언정 인민들에게 안겨줄 새 집에는 자그마한 티도 허용하지 않으시려는듯 그의이께서는 주민들이 주래지구를 예뻐하지 않고 집에서 곧바로 내려와 교통수단을 리용할수 있게 걸음걸도 잘 내주고 교통수단배치도 합리적으로 할때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머지않아 여기에는 은구슬, 금구슬같은 아름다운 황홀경의 주래지가 펼쳐지리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헌신의 구슬땀이 그대로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로 된 듯 아름다운 구슬다락들이 눈부신 빛을 발산하는 그날에 세인이 부럽도록 어깨춤을 들썩이며 새집들이려는 사람들의 행복에 겨운 모습들이 눈에 선히 안겨온다.

리경월

이른 새벽에 도 오려려 한 일군의 피곤부터 격정하시는 수령님께 일군은 아직도 주무시지 않으시는가고 말씀드렸다.

수령님께서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어쩐지 잠이 오지 않는다고, 백두산에서 싸울 때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으니 더 못 자고있다고, 나도 통일된 다음 밀려던 잠을 한번 꼭 자보고싶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할 일을 다 못했다고, 우리는 꼭 우리 손으로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고 하시며 통일이 되면 나는 10년은 더 젊어질것 같다고 하시었다.

원로라 하시며 통일이 되면 나는 10년은 더 젊어질것 같다고 하시었다. 그의이께서는 동포에의 정을 나누시며 그러러 해외조국통일운동의 원

로이고 신각자라고 하시었다. 그의이 평가의 말씀에 감동된 그는 온 겨레가 운명과 미래를 맡기고있는 장군님께서 분초가 새로운 국사를 미루시고 무상의 영광을 베풀어주시어 송구한 마음을 어찌할수 없다고 말씀올렸다.

보다 더한 국사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시며 7천만겨레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앞에서는 모두가 심신을 바칠줄 아는 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통일성업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자고 격려의 말씀을 하시었다.

민족의 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해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려는 사람이 라면 그가 누구이든 한푼에 안아 사랑을 주고 죽어서도 값높은 삶으로 빛내주는것이 민족의 어머니의 위대한 품이다.

주제101(2012)년 9월 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세계평화련합 총재 문선명

자신의 피곤은 생각지 않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는 이

문선명선생의 한생에 대한 평가와도 같은 동료에의 정이 넘치는 경애하는 그의이 조전은 유가족들은 물론 고인의 연구자들과 해외의 동포들 속에서 커다란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에는 문선명선생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어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었다.

한편 이날 문선명선생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하는 의식이 만수대의사에서 있었다.

본사기자

9월 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세계평화련합 총재 문선명

민족의 만년재보, '세기의 대위인전'

민족의 해방자, 구세주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회고록을 펼쳐본다. 어머니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함일혁명권 1-8권)는 조선의 근대 력사에서 민족수난의 비극이 가장 압담하게 증철되던 1910년대부터 조국해방의 기쁨이 삼천리강토에 차넘치던 1945년까지의 기간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회고록을 판통하고있는 기본사상은 인민위권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의 머리글에서 《인민위권》,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자신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었다고,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믿고 그 힘에 의거할 때 대한 주제의 원리야말로 자신께서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한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었다고 서술하시었다.

한평생 오로지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백번 승리한다는 철리를 지니시고 함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생의 자욱자욱이 생동한 화폭으로 서술되어있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돌이켜보면 력사에는 위인들도 많았고 이름난 정치가들도 있었다. 그들속에는 자기의 인생체계를 나름대로 서술한 자서전이나 회상록을 써낸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력사에 이름을 남긴 그 어느 위인, 그 어느 정치가들의 회상록이나 자서전이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처럼 인류에게 참다운 삶의 지침을 밝혀주는 대백과전서로서 커다란 감화력과 견인력으로 만인의 심장을 세차게 들어잡은 레가 있었는가.

회고록의 갈피갈피가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민족수난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망국초엽에 탄생하시어 격변하는 내외정세의 소용돌이속에서 성장하시며 우리 민족의 참다운 영성,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영웅성을 새겨안으시던 어린시절, 민족이 당하는 설움과 비분을 안으시고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산천을 땀이나 눈물로 보시면서 14살 어린 나이에 나라찾으실 큰 뜻을 품으시고 암흑강을 건너신 뜻 잊을 그날에 대한 추억도 있다. 추한에 걸리시어 빈사상태에 빠진 속에서도 조국과 인민앞에 지니신 사명감으로 심신을 가다듬으시며 몸소 지으신 노래 《반일전기》로 대인들을 원수적멸로 불리우시던 천교령의 눈보라에 대한 이야기도 있으며 조선혁명앞에 조성된 엄숙한 위기를 함으로 막아나시며 주체로선을 견지하고 그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대사장전을 벌리시던 다홍애회의 잊을수 없는 날도 있다.

그이께서 믿고 의지한것은 인민이었다. 인민의 힘을 조지동원한다면 능히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할수 있다는 철칙같은 신념이었다.

《북만의 전우들을 찾아》, 《경박호기습에서》, 《새시단의 탄생》, 《조국광복회》...

참으로 자그마한 꾸밈과 과장도 없이 평이하면서도 주옥같은 문장들과 감명하면서 뜻이 깊은 어휘들로 하여 더욱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지가지의 만단사연들을 더듬어보노라면 언제나 인민을 믿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으로 항일전진가시덤불길을 뚫고나가시던 절세의 위인의 영웅사시적한생이 눈물겹게 어려와 저도 모르게 송담한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우리 겨레가 오메불망 소원하던 해방의 기쁨은 이렇게 찾아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인민위권을 숭고한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무장으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안아오신 절세의 애국자, 항일의 전진적영웅, 민족재생의 은인의 위대한 항일투쟁사가 비사히 풍부한 내용들로 집대성되어있는 민족의 만년재보이며 인간이 삶과 투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는 더없이 귀중한 교과서이다.

하기에 회고록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한다. 《회고록의 글줄마다에 인민위권의 숭고한 뜻이 빛발친다. 김일성주석의 회고록은 인민청송의 대서사시이다》,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참다운 인생관을 가르쳐주고 매일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는 교과서이며 정경신앙에 관계없이 누구나 읽어야 할 필독문헌이다》...

우주를 깨우치고 세계를 밝히는 심원한 진리가 있고 온 인류가 절대적으로 신봉할 철칙이 있으며 인간의 운명개척의 솜씨를 지침이 담겨져있는것으로 하여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오늘날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은 물론 지경과 대양을 넘어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의 경탄과 찬사속에 널리 탐독되고있다.

장인철

광범한 재일동포들을 한품에 안으시어

이러한 실례를 남기지 해라 리신분은 광범한 동포대중의 포섭과 단합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를 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그이께서는 비록 재일동포들속에서 지난날 길을 험틀며 조국과 민족앞에 땀땀이 살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수 있고 한때 생각을 잘못하여 조선사람임을 숨기고 일본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 사람도 있을수 있으며 친선이 약한데로부터 일시적으로 동요하거나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나올수 있다.

이러한 실례를 남기지 해라 리신분은 광범한 동포대중의 포섭과 단합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를 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그이께서는 비록 재일동포들속에서 지난날 길을 험틀며 조국과 민족앞에 땀땀이 살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수 있고 한때 생각을 잘못하여 조선사람임을 숨기고 일본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 사람도 있을수 있으며 친선이 약한데로부터 일시적으로 동요하거나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나올수 있다.

이러한 실례를 남기지 해라 리신분은 광범한 동포대중의 포섭과 단합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를 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그이께서는 비록 재일동포들속에서 지난날 길을 험틀며 조국과 민족앞에 땀땀이 살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수 있고 한때 생각을 잘못하여 조선사람임을 숨기고 일본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 사람도 있을수 있으며 친선이 약한데로부터 일시적으로 동요하거나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나올수 있다.

이러한 실례를 남기지 해라 리신분은 광범한 동포대중의 포섭과 단합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를 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그이께서는 비록 재일동포들속에서 지난날 길을 험틀며 조국과 민족앞에 땀땀이 살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수 있고 한때 생각을 잘못하여 조선사람임을 숨기고 일본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 사람도 있을수 있으며 친선이 약한데로부터 일시적으로 동요하거나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나올수 있다.

이러한 실례를 남기지 해라 리신분은 광범한 동포대중의 포섭과 단합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를 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그이께서는 비록 재일동포들속에서 지난날 길을 험틀며 조국과 민족앞에 땀땀이 살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수 있고 한때 생각을 잘못하여 조선사람임을 숨기고 일본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 사람도 있을수 있으며 친선이 약한데로부터 일시적으로 동요하거나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나올수 있다.

이러한 실례를 남기지 해라 리신분은 광범한 동포대중의 포섭과 단합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를 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그이께서는 비록 재일동포들속에서 지난날 길을 험틀며 조국과 민족앞에 땀땀이 살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수 있고 한때 생각을 잘못하여 조선사람임을 숨기고 일본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 사람도 있을수 있으며 친선이 약한데로부터 일시적으로 동요하거나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나올수 있다.

이러한 실례를 남기지 해라 리신분은 광범한 동포대중의 포섭과 단합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를 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그이께서는 비록 재일동포들속에서 지난날 길을 험틀며 조국과 민족앞에 땀땀이 살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수 있고 한때 생각을 잘못하여 조선사람임을 숨기고 일본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 사람도 있을수 있으며 친선이 약한데로부터 일시적으로 동요하거나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나올수 있다.

이러한 실례를 남기지 해라 리신분은 광범한 동포대중의 포섭과 단합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를 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그이께서는 비록 재일동포들속에서 지난날 길을 험틀며 조국과 민족앞에 땀땀이 살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수 있고 한때 생각을 잘못하여 조선사람임을 숨기고 일본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 사람도 있을수 있으며 친선이 약한데로부터 일시적으로 동요하거나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나올수 있다.

이러한 실례를 남기지 해라 리신분은 광범한 동포대중의 포섭과 단합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를 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이러한 실례를 남기지 해라 리신분은 광범한 동포대중의 포섭과 단합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를 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이러한 실례를 남기지 해라 리신분은 광범한 동포대중의 포섭과 단합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를 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이러한 실례를 남기지 해라 리신분은 광범한 동포대중의 포섭과 단합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를 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이러한 실례를 남기지 해라 리신분은 광범한 동포대중의 포섭과 단합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를 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그이께서는 비록 재일동포들속에서 지난날 길을 험틀며 조국과 민족앞에 땀땀이 살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수 있고 한때 생각을 잘못하여 조선사람임을 숨기고 일본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 사람도 있을수 있으며 친선이 약한데로부터 일시적으로 동요하거나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나올수 있다.

이러한 실례를 남기지 해라 리신분은 광범한 동포대중의 포섭과 단합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를 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그이께서는 비록 재일동포들속에서 지난날 길을 험틀며 조국과 민족앞에 땀땀이 살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수 있고 한때 생각을 잘못하여 조선사람임을 숨기고 일본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 사람도 있을수 있으며 친선이 약한데로부터 일시적으로 동요하거나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나올수 있다.

이러한 실례를 남기지 해라 리신분은 광범한 동포대중의 포섭과 단합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를 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그이께서는 비록 재일동포들속에서 지난날 길을 험틀며 조국과 민족앞에 땀땀이 살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수 있고 한때 생각을 잘못하여 조선사람임을 숨기고 일본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 사람도 있을수 있으며 친선이 약한데로부터 일시적으로 동요하거나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나올수 있다.

이러한 실례를 남기지 해라 리신분은 광범한 동포대중의 포섭과 단합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를 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그이께서는 비록 재일동포들속에서 지난날 길을 험틀며 조국과 민족앞에 땀땀이 살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수 있고 한때 생각을 잘못하여 조선사람임을 숨기고 일본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 사람도 있을수 있으며 친선이 약한데로부터 일시적으로 동요하거나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나올수 있다.

이러한 실례를 남기지 해라 리신분은 광범한 동포대중의 포섭과 단합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를 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이러한 실례를 남기지 해라 리신분은 광범한 동포대중의 포섭과 단합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를 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이러한 실례를 남기지 해라 리신분은 광범한 동포대중의 포섭과 단합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를 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이러한 실례를 남기지 해라 리신분은 광범한 동포대중의 포섭과 단합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를 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이러한 실례를 남기지 해라 리신분은 광범한 동포대중의 포섭과 단합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를 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이러한 실례를 남기지 해라 리신분은 광범한 동포대중의 포섭과 단합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를 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이러한 실례를 남기지 해라 리신분은 광범한 동포대중의 포섭과 단합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를 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이러한 실례를 남기지 해라 리신분은 광범한 동포대중의 포섭과 단합에서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를 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실현을 위하여

전쟁을 막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지난 8.15를 맞아 남조선에서는 각 계층 단체들과 인민들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이날에 진행된 《광복 76주년 한반도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대회》에서는 《광복 76주년, 해방과 함께 도래한 분단을 성찰하고 한반도자주통일의 미래를 약속해야 할 오늘 겨레를 적으로 규정하는 전쟁연습이 결국 시작되었다》,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고있는 한반도의 상황을 그저 지켜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한반도운동계적의 주인이 되겠다는 의지로 행동해야 한다》, 《전쟁과 분단이 낳은 넓은 질서를 허물고 구시대적전쟁연습과 반인권적제재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울려나왔다. 이보다 앞서 남조선의 진보적청년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청년들의 미래가 암울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반세기 넘어 지속되고있는 분열 때문이다》, 《통일실현이야말로 청년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개척하는 지름길이자 만능해법이다》고 하면서 끊임없는 전쟁연습으로 조선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평화통일을 해방을 놓는 미국과 당국을 단죄하였다.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강력한 지향이다.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강대해지는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 외세는 장장 70여년의 기나긴 세월 민족분열과 대결의 역사를 강요해오고있다.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칠 사이없이 벌어지는 대규모전쟁연습들도 그러한 반평화, 반통일책동의 일환이다. 이 전쟁연습들은 철두철미 조선반도

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의 위협을 몰아오는 최근으로 되었고. 동족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외세의 분열리간책동에 편승하는 남조선당국의 처사 또한 민족의 념원과 지향에 역행하는 반민족적행위이다. 내외반통일호전세력의 광란적인 북침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이 엄중한 위협을 받고있는 오늘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참혹한 희생자의 운명을 면할수 없고 민족의 존재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자면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인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부터 중지되어야 한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조미의 민족사적 과제로 나서고있다.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야 할 주인은 다름아닌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다. 북과 남의 온 겨레가 단합하여 민족의 최대속원을 이룩하여야 할 오늘 날 동족이 동족을 반대하여 정세를 긴장시키고 평화를 파괴하는것은 민족분열을 강요하는 외세의 무분별하고 모략적인 민족리간책동에 동조하는 자멸 행위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외세의 무분별하고 모략적인 전쟁책동에 높은 각성을 가지고 대하여야 하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전쟁위험을 막고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철저히 수호해나가야 할것이다. 최명숙

공화국정부는 북과 남, 해외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는 속에서 통일을 념원하는 전민족의 총의를 모으고 단합을 실현하며 민족의 힘으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세우기 위한 현실성있는 발기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공화국은 련방국가창립방안과 련방국가의 10대시정방침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즐기차게 벌려나가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제안들을 련이어 내놓았다. 1980년 11월 11일 공화국의 제정당, 사회단체들은 련석회의를 열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할때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편지에서는 민족의 총의와 온 겨레의 힘을 모아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려는 일념으로부터 출발하여 북과 남, 해외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적당할 수의 대표들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준비위원회와 같은 민족공동의 협의기구를 시급히 내놓도록 제의하였다. 공화국정부는 1981년 1월 1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반년 남짓한 기간 광주시민들의 피로 일룩진 반역의 행적을 걸어온자가 그 무슨 《상호방문》을 들고나온

것은 그자체가 민족의 절절한 념원을 회통하는것이며 신성한 민족의 위업을 모독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남조선당국이 격에 맞지도 않는것을 들고나올것이나 아니라 옳바른 립장부터 가져야 한다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것을 주장하였다. 공화국정부는 1981년 8월 6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7차회의를 열고 정당, 사회단체들의 련합성명을 발표하였다. 련합성명에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의 정당, 단체대표들과 해외동포들로 구성되는 민족통일총진대회를 소집하고 거기에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비롯하여 통일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과 기타 북과 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협의할것을 다시금 제의하였다. 공화국의 정당, 사회단체들은 민족통일총진대회를 소집하기 위하여서는 그 예비적조치로서 대외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대표들사이의 쌍무적, 다무적대화를 광범히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대화를 위하여 남조선과 해외의 그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으며 그 누구에게 일률적인 반역의 행적을 걸어온자가 그 무슨 《상호방문》을 들고나온

것은 그자체가 민족의 절절한 념원을 회통하는것이며 신성한 민족의 위업을 모독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남조선당국이 격에 맞지도 않는것을 들고나올것이나 아니라 옳바른 립장부터 가져야 한다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것을 주장하였다. 공화국정부는 1981년 8월 6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7차회의를 열고 정당, 사회단체들의 련합성명을 발표하였다. 련합성명에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의 정당, 단체대표들과 해외동포들로 구성되는 민족통일총진대회를 소집하고 거기에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비롯하여 통일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과 기타 북과 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협의할것을 다시금 제의하였다. 공화국의 정당, 사회단체들은 민족통일총진대회를 소집하기 위하여서는 그 예비적조치로서 대외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대표들사이의 쌍무적, 다무적대화를 광범히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대화를 위하여 남조선과 해외의 그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으며 그 누구에게 일률적인 반역의 행적을 걸어온자가 그 무슨 《상호방문》을 들고나온

공화국은 1982년 2월 1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발표하여 북과 남, 해외의 정치인들의 100인련합회의를 소집할것을 제의하였다. 련합회의는 과거여하에 관계없이 통일에 뜻을 둔 개별적정치인으로서 해외인사들을 포함하여 북과 남에서 각각 50명으로 구성하며 회담형식은 북과 남사이의 쌍무회담이 아니라 모든 인사들이 거주지역과 소속에 관계없이 북과 남을 초월하여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다무적련합회담으로 할것을 예견하였다. 이러한 100인련합회의는 당시 조건에서 민족의 통일념원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민주주의적인 통일협상으로 될수 있으며 민족대단결의 마당으로 될수 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성의있는 제안들과 조지들은 동족대결에 혈안인 남조선당국자들에 의하여 응당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하지만 공화국의 이 제안과 조치들은 통일당도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진정한 통일협상의 길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발기로서 하나의 민족적리념에 온 겨레의 힘과 슬기를 결집하여 통일에로 나아가기 위한 애국지성의 발현이었다. 본사기자 최광혁

통일을 불러

민족자본가가 공화국의 대의원으로 (2)

남남에서 해방을 맞이한 리종만선생은 여러 기회에 북행길에 올랐지만 그 뜻을 이룰수가 없었다. 그가 위대한 태양의 품으로 찾아갈 용단을 더욱 굳게 되었는데 평양에 갔다는 리우형선생과 우리 민족사에 특기할 거족적인 4월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온 김구선생으로부터 민족의 태양인 김일성장군님을 직접 만나보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이 떠받들어야 할 유일한 령도자이시며 우리 민족은 오직 김일성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장군님께서 남의 힘으로가 아니라 바로 조선민족의 힘을 한데 모아 통일독립을 하자는 립장이시다!》 《나는 이전에 공산주의자들이란 협애한 사람인줄로만 알았는데 이번에 가보니 도량이 크고 판매하기 비결이 없다는것을 알았다. 김장군님과 같은신분이 진정한 공산주의자라는것을 나는 이번에 내 눈으로 실지 보고서야 진심으로 느꼈단 말이요. 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가겠소. 이 길만이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다.》 이렇게 자신의 심중의 고백을 터치는 리우형선생과 김구선생의 말에서 리종만선생은 불세출의 영웅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동경과 흠모의 마음을 간직하게 되었고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었다. 당시 리승만의 반민족적행위는 선생을 더욱 분격하게 하였다. 리종만은 선생이 운영하던 《독립선보》가 자기들의 정치내막을 폭로하였다고 하여 강제로

폐간시키고 광산개발을 미끼로 선생을 리용하려던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되자 그에게서 산업영역을 빼앗아 매관자본가들에게 넘겨주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아버지수령님께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에 그를 불러주시었다. 개가족을 쓰고 굴욕을 참느라, 그렇게 않으면 하루를 살아도 지조를 지키는 보람속에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선생은 환갑나이에 많은 재산과 사회적지위, 소중할 가정을 뒤에 두고 혈혈단신으로 평양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품으로 갈 대용단을 내리었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남조선의 조선산업건설협의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력사적인 대회장에 들어서게 되었다. 주체38(1949)년 6월 어느날 선생은 오메불망 뵈고싶던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뵈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는 날로 심각해지는 미제의 분열책동에 대처하여 광범한 애국적열을 결속하기 위하여 소집된 대회로서 남조선과 해외의 70여개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참가하였다. 북과 남의 대표들이 모여 민족지상의 파업인 조국통일문제를 론의하게 되었다는 기쁨으로 하여 선생의 가슴은 마냥 높뛰었다. 한편으로는 민족자본가로서 반일 애국의 뜻을 품고 일본놈들과 담을 쌓고 지내다가는 하지만 공화국에서 자기를 어떻게 보고 대접했는가를 하는 위구심과 초조감을 품처럼 가시수가 없었다. 어쨌든 자기는 왜놈의 통치밑에



리종만선생과 그의 아들

서 큰 기업을 한 자본가였고 부자였었다. 선생이 이런 생각을 이어가고 있는데 참가자들의 우렁찬 박수소리와 환호성을 함몰에 받으면서 장군님께서 주석단으로 걸어 나오시었다. 회의장에 들어서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자리에 앉으시며 옆에 있는 허헌선생을 비롯한 주석단성원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그러시고는 남조선에서 들어온 대표들 가운데 리종만선생이 왔으면 주석단으로 올라오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어찌고 주석단으로 오면 선생이 아버지수령님께 인사를 드려 하자 그의 손은 자리에 일어서서 이그 손을 꼭 잡아주시며 남조선산업계에서 명망이 있는

리종만선생을 오늘 이렇게 만나니 대단히 반갑다고, 선생이 년로한 몸으로 38°선을 넘어 먼길을 오시니 나라도 고맙다고, 나는 선생이 남조선의 산업건설협의회 대표로 평양에 와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에 참가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교시하시었다. 계속하시어 그이께서는 리종만선생이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에 참가한데 대하여 훌륭한 애국적기사로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아버지수령님의 과분한 평가까지 받고 너무도 송구하여 선생은 감격에 목매어 인사의 말씀도 제대로 못 올리지 못하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회의후식시간에도 रु지 않으시고 선생과 뜻깊은 담화를 하시었다. ... 선생은 해방후에도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리승만괴뢰도당의 매국배주행위를 반대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잘 싸웠습니다. 우리는 선생의 애국적지조를 높이 평가하고있으며 국토완정과 조국의 번영을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언제나 선생과 함께 애국자들과 손잡고 나갈것입니다. ... 정령 너무도 분은 넘치는 평가였으며 감동은 분을이였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장장 20성상 항일혈전을 벌려 오시며 해상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인데 나를 민족적량심과 애국적지조가 있는 애국자라고 이렇게 높이 내세워주시다니...) 본사기자

남조선청년동맹에 민주주의기발아래

세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하며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청년대중을 하나로 결속하는것은 해방직후의 복잡다단한 정세하에서 새 사회건설, 통일적인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해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왔다. 이것은 여러 갈래의 청년단체가 있어 청년대중의 단결을 이룩하지 못하고있던 남조선청년운동의 실태를 념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었다. 남조선에서 광범한 청년대중을 망라할수 있는 민주주의적청년조직을 내오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자식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종파주의는 지난날 민족해방운동뿐아니라 청년운동에도 극히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고 하시면서 당시 남조선의 청년자본가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파벌적경향을 단호히 배격하고 청년대렬내에 파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남조선청년인군들의 가슴은 크나큰 격정에 휩싸였다. 금시 답답하던 가슴이 환히 열리면서 하늘이라도 날을것만 같은 힘과 용기가 솟구쳐올랐다. 남조선청년인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한마디한마디 놓칠세라 자자구구 새겨가면서 새로운 마음속결의를 다졌다. 서울로 떠나기에 앞서 인사를 올리기 위해 찾은 남조선의 청년인군들을 또다시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여지기에 앞서 《그럼 통일된 다음 꼭 다시 만납시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따뜻한 배려를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과 따뜻한 배려를 받고 38°선을 넘는 이들은 남조선의 애국적청년들

을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하지만 마음뿐이지 애국적청년들을 하나로 결속해나가는 투쟁은 어려움과 시련을 동반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후에도 또다시 가르치심을 받고 찾아온 남조선청년대표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조선청년운동을 옹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시기 남조선청년운동의 기본방향은 광범한 청년대중을 민주주의기발아래 조직적으로 튼튼히 결속하는것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그뿐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동들의 민청해산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공화국북반부의 청년들과 정당, 사회단체들도 이 투쟁에 합세하였으며 세계민청에서도 남조선당국에 항의문을 보냈다. 이에 절절한 반동들은 하는수없이 민청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1947년 6월 서울에서는 민주애국인사들의 촉복속에 민주애국청년동맹이 결성되었다. 남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은 1948년 11월 평양에서 진행된 북조선민주청년동맹 제3차대회에도 자기들의 대표들을 파견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해방후 북과 남에 애국적청년대중을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기발아래 하나로 묶어주는 사업에서는 커다란 진전이 이룩될수 있었다. 리은심



최근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강행된 합동군사연습을 두고 남조선당국은 그 후과가 두려워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다고 한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비롯한 참모회의를 련속 벌려놓았는가 하면 통일부는 《당사자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세악화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있다고 한다. 한편 남조선군부자들은 그 무슨 《확고한 대 비태세》를 운운하면서 내부의 안보불안을 누착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은 합동군사연습의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이 시작되자 북은 련이어 담화를 통해 《엄청난 안보위기》를 경고하면서 기본연습실행과 관련한 남조선당국의

움직임을 지켜보고있다. 북이 예고한 《엄청난 안보위기》가 현실화될수 있다고 평가하고 하였다. 남조선당국이 불안을 금치 못하고있다는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예로부터 죄를 지으면 발원함을 자지 못한다고 하였다. 다 아는것처럼 남조선에서 벌어진 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공화국을 겨냥한 도발적인 북침행적연습으로서 조선반도정세를 악화시키는 기본요인으로 되군 한다. 그렇지 않아도 남조선에서 벌어진 《림 스피리트》, 《키리츠보》, 《독수리》와 같은 각종 명목의 합동군사연습들로 하여 남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군 하였다는것

은 잘 알려져있다. 이번 하반기 지휘소훈련에 그 무슨 《북지역정령》이 들어간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이것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매우 위험천만한 전쟁연습, 핵전쟁연습이라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는것이다. 사실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방어적성격》과 《년례적인 훈련》에 대해 떠드는것은 저들의 피악을 감추어보려는 한갓 꾀변에 지나지 않는다. 자루속의 송곳은 결코 감출수 없는 법이다. 그 규모와 형식이 어떠한 침략적이며 도발적인 합동군사연습

의 성격은 절대로 약화될수도 감출수 없는것이다. 전쟁연습과 대화, 적대와 협력은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 민족의 평화와 안전, 번영은 과거 령정시대와 다른 틀에서 벗어나 실현될수 없다고 하면서 합동군사연습중단을 요구하여 남조선 각계층이 투쟁에 일떠선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지어 조선반도 주변나라들에서도 합동군사연습과 관련하여 《북남관계를 파탄시키는 행위》, 《조선반도정세를 악화시키는 기본요인》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있는것이다. 죄는 지은데로 간다고 민심에 역행하여 외세와 손잡고 동족을 겨냥한 침략전쟁연습을 끝끝내 강행한 남조선당국은 앞으로의 모든 후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박영일



가련한 하수인들의 망상

남조선호전세력이 무장장비개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2021년 무기부속품자체개발장기계획》, 《2021년 국방중소기업지원사업시책》, 《2021년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체부속품등록제도》와 같은 각종 계획들과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 여기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있는것이 실례로 된다.

이러한 가운데 남조선호전세력들은 지난 8월 중순 잠수함을 넘겨주는 의식을 벌여놓고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

하고 건조한 나라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광고했는가 하면 그 무슨 《대양해군》으로 발전하였다. 무장장비들의 자체개발에 주력하였다고 허세를 부렸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속에서는 현 무장장비실태의 취약성을 가리우고 북에 비한 군사적열세를 만회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틀린 소리가 아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남조선군무장장비의 대부분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에서 수입한것으로서 고장이 잦은 반

면에 부분품조달이 어려운것으로 하여 수리 및 정비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등 한심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실례로 제21대 《국회국정감사》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끌어들이 20대의 스텔스전투기(F-35A)를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해외에서 정비해야 하고 4대의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도 2대가 부분품고장으로 정상적인 작전수행에 참가하지 못하고있다는 자료가 공개되었다.

결국 무기부속품을 자체로 개발한다. 무장장비 《국산화》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들이치는것은 저들의 한심한 무장장비실태에 대한 비난여론을 달래고 내부의 안보불안을 누착해보려는 일종의 궁여지책이나 같은것이다.

하지만 그러다고 하여 역대 현세를 퍼부어 미군수독점체들의 배만 불러주는 하수인들의 가련한 망상을 가리울수는 없는 법이다.

남조선군이 미국제무기로 장비되어있고 또 자체개발한다고 하는 무장장비들의 경우에도 핵심부분품들이 대부분 미군수독점체들로부터 넘겨받은것이라는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원래 정치

경제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어 있고 전직작전통제권도 없는 남조선이 그 무슨 무장장비 자체개발에 대해 떠드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현실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호전세력이 무장장비 자체개발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것이아말로 가련한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호전세력의 무장장비개발행동은 그렇지 않아도 철에한 조신반도정세를 더욱 긴장시키는 군사적당동이며 그들의 대적적본성만을 날날이 드러낼뿐이다.

본시기자 박철남

남조선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개정안》을 놓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사대행위를 해대며 울려부치고있어 정국이 란장판이 되고있다고 한다.

《국민의힘》것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협박법》을 만들어 하고있다. 군부독재때도 없었던 기피한 책동을 감행하려 한다고 떠들고있다. 또한 방통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새로 임명된데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있는 《언론중재법》의 연장선이라고 비난하고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극우보수언론들도 《어처구니없는 결정》, 《부적절한 선출》이라며 여기에 적극 맞장구를 치고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기자협회, 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를 비롯한 진보적인 언론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힘》 진신들의 력사에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주적이 너무나도 선명하다.》, 《언론탄압, 언론길들이기의 주범들이 내로남

불의 생주정을 하고있다.》고 비난하면서 언론개혁법안을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우연한 소리가 아니다. 남조선에서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진보적인언론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의로운 언론활동을 막

는 신문사 사장을 악명높은 《보안법위반》에 걸여 살해하는 귀족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박정희의 뒤를 이은 전두환, 로태우 등 친미파쑈독재자들의 언론탄압만행도 극심하기 이를데없었다.

이자들을 본따 리명박, 박

제창하며 이전 《참여정부》가 보수신문들의 언론시장독점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했던 《신문법》을 개정하고 보수신문들이 방종까지 걸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에 보답하여 보수언론들이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조

정을)을 놓고 막무가내로 반발해나서고있으니 무엇때문인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민심을 기만하고 보수언론들을 부추겨 저들에게 유리한 흑색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여당이 하나 빼앗긴 권력을 다시 찾아보려는것이 《국민의힘》의 진짜 속심이다.

《국민의힘》패들이 아무리 력사를 외곡하고 사실을 오도하며 갖은 행악질을 해대고 적반하장식으로 놀아내도 거기에 속아넘어갈 사람은 없다.

언론탄압의 원흉인 《국민의힘》이 해피한 기간극을 그만두고 저지른 언론탄압악, 언론길들이기행적을 자백하고 반성해야 한다는것이 오늘날 남조선인민의 요구이다.

리승건

도적이 도적이야 한다

남조선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개정안》을 놓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사대행위를 해대며 울려부치고있어 정국이 란장판이 되고있다고 한다.

《국민의힘》것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협박법》을 만들어 하고있다. 군부독재때도 없었던 기피한 책동을 감행하려 한다고 떠들고있다. 또한 방통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새로 임명된데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있는 《언론중재법》의 연장선이라고 비난하고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극우보수언론들도 《어처구니없는 결정》, 《부적절한 선출》이라며 여기에 적극 맞장구를 치고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기자협회, 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를 비롯한 진보적인 언론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힘》 진신들의 력사에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주적이 너무나도 선명하다.》, 《언론탄압, 언론길들이기의 주범들이 내로남

불의 생주정을 하고있다.》고 비난하면서 언론개혁법안을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우연한 소리가 아니다. 남조선에서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진보적인언론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의로운 언론활동을 막

는 신문사 사장을 악명높은 《보안법위반》에 걸여 살해하는 귀족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박정희의 뒤를 이은 전두환, 로태우 등 친미파쑈독재자들의 언론탄압만행도 극심하기 이를데없었다.

이자들을 본따 리명박, 박

제창하며 이전 《참여정부》가 보수신문들의 언론시장독점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했던 《신문법》을 개정하고 보수신문들이 방종까지 걸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에 보답하여 보수언론들이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조

정을)을 놓고 막무가내로 반발해나서고있으니 무엇때문인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민심을 기만하고 보수언론들을 부추겨 저들에게 유리한 흑색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여당이 하나 빼앗긴 권력을 다시 찾아보려는것이 《국민의힘》의 진짜 속심이다.

《국민의힘》패들이 아무리 력사를 외곡하고 사실을 오도하며 갖은 행악질을 해대고 적반하장식으로 놀아내도 거기에 속아넘어갈 사람은 없다.

언론탄압의 원흉인 《국민의힘》이 해피한 기간극을 그만두고 저지른 언론탄압악, 언론길들이기행적을 자백하고 반성해야 한다는것이 오늘날 남조선인민의 요구이다.

리승건

남조선의 여야당세력이 다름에 《대선》을 겨냥하여 중도층의 환심을 사보려고 무진 예를 쓰고있지만 결과가 없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중도층은 진보, 보수의 리념보다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정치적립장을 달리해오는 계층인것으로 하여 력대적으로 정치집단들이 그들에게 물어당기려고 애를 쓰는 대상이다.

이런 중도층이 정쟁과 패싸움,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욕설과 같은 구태정치에만 몰두하고있는 정계에 반감을 가지고 등을 돌려대고있는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야당세력에 대한

중도층의 배척과 혐오감은 더하다고 한다.

실례로 전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율은 날로 하강선을 그리고있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8월 20일 남조선의 한 여론조사기관은 중도층에서 윤석열에 대한 《호감도》는 매우 낮은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바빠맞은 윤석열이 중도층의 선선을 끌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 《중도층의 생각을 설명하는 방식은 사려나하겠다.》며 분주당을 퍼우고 《중도》를 표방하는 《국민의 당》 대표에게 추파를 던지고있고 등을 돌려대고있는 지지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과 정치진

문가들은 예로부터 《스렁 보터》(어느 한 정당에만 투표하지 않는 계층)로 불리우면서 선거 때마다 자기의 독특성을 시위한 중도층이 점점 보수야당을 멀리하고 윤석열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대선》후보들을 외면하고있다. 팽당한 반응의 이유는 망발과 특권적,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중도층이 가장 싫어하는 보수세력의 악습이 윤석열에게서 그대로 굳어진 모습으로 나타나고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기성정치에 등을 돌려낸 중도층의 선택이 여야 《대선》후보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조남석

최근 남조선정권에서 《국민의힘》을 보고 《좀달라졌다.》는 말을 더러합니다.

《국회》의원경험도 없는 젊은이를 당대표로 내세우질 않나, 당대 척을 지고있던 호남지역에 가 허리를 굽성시킬 않나. 현 당국에 부무했던 전 검찰총장이거나 전 감사원장도 척척 받아들이질 않나. ...

그러면 《길 붙안》이라는 말과는 달리 내부는 아니구만요.

당지도부와 《대선》후보들끼리 울리받고 내리누르고, 후보들은 또 저들끼리 죽일 놈 살릴 놈 야단입니다.

좀 들어다볼까요.

윤석열: 경선야 후보들의 뉘인데 당 대표가 오라가라, 이리저리 헤라 야단어이요? 명백한 월권행위요. 그러다 탄핵감 됩시다.

류승민: 자가 어느 별에서 온 애냐?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햇배기...

홍준표: 저거 당을 개무시하는거지. 굴러온 돌이 바친 돌 뽐는다더니 저런 얼치기들까지 흘러들어오니

보수가 아니라 《오수》라고 사람들이 욕하는게요. 시채형: 홍후보, 그 말은 삼가합시다. 그러구 윤씨, 《1일1만명》소리 듣기 싫지도 않소. 결발살이하제 두 눈치가 있어야지.

윤석열: 《1일1만명》? 내가 《120시간근무》, 《불량식품》 등 실언을 한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엔 아닐거

도대체 국민이 누구인가

얼마전 남조선국방부가 강원도 춘천시에 있던 이전 미군기지에 대한 1차정화비용으로 수십억여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COVID-19》를 비롯한 여러 악재들로 하여 사람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있는 지금 미군이 오염시킨 땅을 정화하기 위해 막대한 현세를 낭진하는것을 보면 뭘 주고 뺨맞는 창녀신세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춘천시에 주둔하였던 남조선정미군기지의 여류락에서는 기준수치를 훨씬 넘어선 토양오염이 확인되었다.

또한 시골조사과정에 아스팔트포장재가 들어있는 페도 람통들도 발견되어 주변환경이 심히 오염되어있다고 한다.

춘천시뿐이 아니다. 미군이 들고있었던 각지의 미군기지오염실태도 마찬가지로

이다.

남조선환경부의 《캠프워커 반환부지의 토양과 지하수환경오염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경상북도 대구시에 있던 남조선정미군기지 《캠프 워커》직송기착륙장의 토양, 지하수에 대한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이곳의 건물내부에서는 1급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것으로 나타났고 조사결과 발암물질 등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그 걸출면적이 축구장 5개넓이에 해당하는 3만여㎡에 이른다

특히 1급발암물질인 비소는 그 기준치를 14.8배나 넘어섰으며 그것은 이곳이 거주지역으로 쓰일 경우 주민 1만명당 2명이 암에 걸릴수 있는 량으로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다고 한다.

이밖에도 강원도의 녕림과 경기도의 하남, 경상북도의 포항 등 미군기지에서서도 기준수치를 훨씬 넘는 발암물질들이 검출됐다고 한다.

이것을 단순히 남조선정미군의 환경과피해피로만 보아야 하겠는가.

아니다. 남조선을 한갖 전쟁연습터, 오물처리장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군의 시각, 남조선인민들의 목숨을 파리만큼도 치부하지 않는 강점군의 오만성이 낳은 죄악이다.

강점군이 인민들의 삶의 리전을 타고앉아 더럽히고있는것을 뵈면 보면서도 주대 있는 소리 한마디 변변히 하지 못하고 제 주머니의 돈까지 섬겨바치면서 밀착개질에 여념이 없는 일박진 망상에 대해서는 또 무수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에서는 《미국이 필요한 전쟁연습도, 세계화대의 미군기지까지도 지어준다. 미국이 실컷 쓰다 오염시킨 기지를 돌려받으면서도 환경정화비용을 한푼도 못 받아낸다. 조국강토도 평화도 다 내주고 우리 돈까지 퍼주는 동맹이 과연 바람직한 동맹인가.》라는 비탄과 분노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제 내키는대로 돌아치며 싸고있는 강점군, 꿀떡은 병어리가 되어 뒤처리에만 급급하는 남조선당국, 도대체 그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김철심



위선자에게 차려진 명단

남조선의 여야당세력이 다름에 《대선》을 겨냥하여 중도층의 환심을 사보려고 무진 예를 쓰고있지만 결과가 없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중도층은 진보, 보수의 리념보다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정치적립장을 달리해오는 계층인것으로 하여 력대적으로 정치집단들이 그들에게 물어당기려고 애를 쓰는 대상이다.

이런 중도층이 정쟁과 패싸움,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욕설과 같은 구태정치에만 몰두하고있는 정계에 반감을 가지고 등을 돌려대고있는것이다.

특히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야당세력에 대한

중도층의 배척과 혐오감은 더하다고 한다.

실례로 전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율은 날로 하강선을 그리고있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8월 20일 남조선의 한 여론조사기관은 중도층에서 윤석열에 대한 《호감도》는 매우 낮은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

바빠맞은 윤석열이 중도층의 선선을 끌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 《중도층의 생각을 설명하는 방식은 사려나하겠다.》며 분주당을 퍼우고 《중도》를 표방하는 《국민의 당》 대표에게 추파를 던지고있고 등을 돌려대고있는 지지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과 정치진

문가들은 예로부터 《스렁 보터》(어느 한 정당에만 투표하지 않는 계층)로 불리우면서 선거 때마다 자기의 독특성을 시위한 중도층이 점점 보수야당을 멀리하고 윤석열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대선》후보들을 외면하고있다. 팽당한 반응의 이유는 망발과 특권적,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중도층이 가장 싫어하는 보수세력의 악습이 윤석열에게서 그대로 굳어진 모습으로 나타나고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기성정치에 등을 돌려낸 중도층의 선택이 여야 《대선》후보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조남석

최근 남조선정권에서 《국민의힘》을 보고 《좀달라졌다.》는 말을 더러합니다.

《국회》의원경험도 없는 젊은이를 당대표로 내세우질 않나, 당대 척을 지고있던 호남지역에 가 허리를 굽성시킬 않나. 현 당국에 부무했던 전 검찰총장이거나 전 감사원장도 척척 받아들이질 않나. ...

그러면 《길 붙안》이라는 말과는 달리 내부는 아니구만요.

당지도부와 《대선》후보들끼리 울리받고 내리누르고, 후보들은 또 저들끼리 죽일 놈 살릴 놈 야단입니다.

좀 들어다볼까요.

윤석열: 경선야 후보들의 뉘인데 당 대표가 오라가라, 이리저리 헤라 야단어이요? 명백한 월권행위요. 그러다 탄핵감 됩시다.

류승민: 자가 어느 별에서 온 애냐?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햇배기...

홍준표: 저거 당을 개무시하는거지. 굴러온 돌이 바친 돌 뽐는다더니 저런 얼치기들까지 흘러들어오니

보수가 아니라 《오수》라고 사람들이 욕하는게요. 시채형: 홍후보, 그 말은 삼가합시다. 그러구 윤씨, 《1일1만명》소리 듣기 싫지도 않소. 결발살이하제 두 눈치가 있어야지.

윤석열: 《1일1만명》? 내가 《120시간근무》, 《불량식품》 등 실언을 한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엔 아닐거

이것저것 꺾어모으기는 했지만, 부름법도 달라졌습니다. 이전 박근혜 《정권》시기만 보아도 《전략, 전략, 전략, 전략, 전략》 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지금은 《들고레》, 《벌치》, 《고등어》, 《사자》, 《히어나》, 《메돼지》, 《망구스》... 이전에 《천리》, 《천박》 하면서 계파싸움을 하더니 《들고레》 대 《벌치》, 《굴러온 돌》 대 《박힌 돌》 이렇게 치고받기를 합니다.

당대표는 《변화와 세대교체》, 《공정과 정의》만 읊조리는 《얼굴마담》이 되어버리고 그루에서 원로, 중진의원들이 날뛰는 《수렴정당》체제로 바뀔 판입니다.

권력을 위해 상하좌우로 진흙탕속의 개싸움을 벌리는 《국민의힘》, 요강이 변칙인다고 그것으로 물을 떠마실수 없는것처럼 아무리 《변화》를 떠들고 해도 지루해기를 기등으로 쓸수 없는 법입니다.

권력광들의 본성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기에.

김정혁

남조선의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대표와 《대통령》후보 윤석열후보의 갈등이 여론의 주요화제거리로 등장하고있다.

남조선의 주요언론들은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축으로 하는 당내 갈등이 지속되고있다.》고 보도하면서 《윤석열에게 당대표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있다.》고 보도하고있다.

남조선의 《연합뉴스》는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간의 신경전이 본격적인 대선경선을 앞두고 한층 더 고조되고있다. 표면적으로는 화합을 경계하며 상호관리에 애쓰는듯 모습이지만 두사람간 감정의 골은 솟아올라 돌발악재로 도리없이 끓어올라

갈등의 씨앗, 재앙의 근원

남조선의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대표와 《대통령》후보 윤석열후보의 갈등이 여론의 주요화제거리로 등장하고있다.

남조선의 주요언론들은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축으로 하는 당내 갈등이 지속되고있다.》고 보도하면서 《윤석열에게 당대표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있다.》고 보도하고있다.

남조선의 《연합뉴스》는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간의 신경전이 본격적인 대선경선을 앞두고 한층 더 고조되고있다. 표면적으로는 화합을 경계하며 상호관리에 애쓰는듯 모습이지만 두사람간 감정의 골은 솟아올라 돌발악재로 도리없이 끓어올라

남조선의 언론이 《당대표와 윤석열의 갈등이 보수평도연맹들의 시각》이라고 보도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지금 보수세력내에서는 윤석열이 《보수계열의 장본인》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를 좋지 않게 보고있다고 한다.

《국민의힘》내부에서 《윤석열대세론》으로는 다음이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할수 없다는 목소리들도 울려나오고있지만 그만한 인물도 없는 보수정당이기엔 울며 겨자 먹기로 윤석열을 견고히 하고있다.

사실들은 저들내부에 독특한 후보감이 없어 윤석열과 같은 배신자들에게 기댄수밖에 없는 보수당의 가련한 처지를 여지없이 보여주고있다.

본시기자 주광일

남조선에서 당국의 일자리정책과 방역대책 등에 대한 각계층의 불만과 비난이 날로 높아지고있다고 한다.

특히 고용상황이 최대로 악화되어 로동계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은 당국이 일자리문제해결을 《집권공약 1호》로 내걸고 청와대에 일자리위원회를 내온다. 일자리상황관을 내건다 하며 일자리마련에 막대한 자금을 퍼부었지만 현재

비정규직이 사상 처음 700만 명을 넘어서고 청년실업률은 1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실업자는 2021년 상반기에 491만 6 000여명으로서 2017년이후 140만명이 늘어 나 1997년 외환위기이후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였다고 전하였다.

하여 민주로총을 비롯한 각계층이 연수 통성, 파업을 벌리고있다

《지금 감염보다 더 무서운것은 일터에서의 죽음과 해고, 차별과 불평등이다.》, 《자본과 맞서싸우는 이 땅

의 해고로동자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싸우며 죽어가고있다. 단 하나 일자리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약속은 어디에 갔는가. 왜 로동자들은 거리에서 싸우야 하는가.》, 《거기에 《COVID-19》까지 더해져 로동자들의 일자리는 사라지고있고 삶은 더더욱 피폐해지고있다. 사회안정장은 느슨해졌고 로동자들의 권리는 후퇴하고있으며 로동현장에서 생명과 안전은 등한시되고있다.》, 《저들은 편하게 앉아 레일을 보고 살아가겠지만 여기 있는 우리

는 오늘날 보고 살아간다. 로동자들의 답은 결국 투쟁이다. 해고에 맞선 투쟁만이 답이다.》...

이것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권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로동자들의 웨칭소리이다.

한편 급속히 확산되는 악성전염병사태로 방역적거리두기의 마지막 4단계를 실시하면서 《확고 굳은 방역대책》과 《확전공공》을 력설하고있는 당국에 대해 정치방역, 홍보방역만 한다고 민심이 끓고있으며 8.15를 계기

로 특대형부정부패사건인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살이를 하고있던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한데 대해서도 각계층의 불만이 계속 터져나오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당국의 뺄성적, 궁여지책의 일자리정책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있다. 무능한 《정부》가 요망하게 광고하고있는 일자리는 가상현실에서나 찾아볼수 있는 신기루와 같다. 청와대가 《일자리정부》를 표방하였지만 《일자리실내정부》로 락인되었다고 평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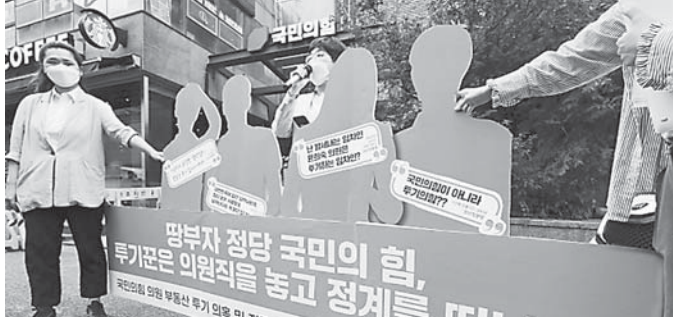
《방역실내정부》, 《일자리실내정부》, 사법정의, 공정경제, 《법치주의》 파괴로 민생을 더욱 도란에 빠지게 한 현 당국에 대한 불만, 비난으로 들끓는 남조선인민이다.

김영혁



두 제도에 비낀 청년들의 모습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출판물에 이런 글이 실렸었다. «... (3포세대)는 불안정한 일자리, 학자금대출상환, 기약없는 취업준비, 치솟는 집값 등 과도한 삶의 비용으로 인해,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한다.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세대)도 생겨났다. 지금은 (5포세



대를 벗어 나 희망과 꿈까지 포기한 (7포세대), 모든 것을 포기한 (N포세대)가 생겼다.» 글에서는 극심한 취업난에 직면해 암울한 청년세대를 나타내는 신조어들이 속속 등장한다(7포세대, 모든 것을 포기한 (N포세대)가 생겼다.) 글에서는 극심한 취업난에 직면해 암울한 청년세대를 나타내는 신조어들이 속속 등장한다(7포세대, 모든 것을 포기한 (N포세대)가 생겼다.) 글에서는 극심한 취업난에 직면해 암울한 청년세대를 나타내는 신조어들이 속속 등장한다(7포세대, 모든 것을 포기한 (N포세대)가 생겼다.)

지금 남조선에서 20대, 30대의 청년층에서 기성정치인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제일 높은 것도 그들의 막대한 삶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남조선에서 청년들이 절망에 빠져 한숨을 쉬 때 공화국에서는 전혀 다른 격동적인 현실이 연일 펼쳐지고 있다.

청년들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부강조국건설을 앞장서서 떠돌고나가는 위훈의 창조자로, 미덕의 주인공들로 떠받들려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공화국에 세차게 일어난 청년들의 탄원열풍을 놓고도 잘 알 수 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이후 남포시의 140여명 청년들이 제일 먼저 사회주의 농촌으로 진출한데 이어 지금 각지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하고 있다.

얼마전 평안남도에서는 덕천지구청년탄원합기업소와 순천지구청년탄원합기업소 안의 청년들격대들에 입대한 청년들이 석탄장산으로 나라를 만들 공은 맹세를 다지며 수천척 지하막장에 애국헌신의 첫 자욱을 뜨겁게 새겼으며 평안북도에서도 창성군안의 고공증착교출입생들이 창성군 인산협동농장에 집단탄원한 것을 비롯하여 염주군, 박천군 등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탄원, 광산, 협동별로 탄원 진출하였다.



북녘의 교육현장을 가다

몇해전 나는 조국을 다녀온 동료와 마주앉았다. 서방의 모략적이고 날조된 선전을 그대로 믿고 억측과 물리해지어 일종의 두려움을 안고 갔다가 지루한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신기한 세계를 발견하고 비로소 인식을 새롭게 했다며 친구는 흥분에 떠 있었다.

그날 친구는 시간가는줄 모르고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중에서도 조국에서 학령전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체계가 상당히 발전되었다는 것, 어린이들의 희망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려는 사회주의교육제도가 부러웠다는 감동 어린 그의 말에서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가 받은 감동은 그후 조국방문의 날 날 나 자신이 체험한 것이기도 했다.

몇해전 조국을 방문하였던 나는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을 많이 키워내는 조기음악교육기지로 소문난 경성 유치원에 한번 꼭 가보고 싶던 소원을 풀 수 있었다. 평양의 중심부에 서방 세계에서 《곡선이 아름다운 거리》라고 평하였던 현대적인 창천거리가 있다. 조국방문기간 창천거리를 지나다니면서 타원형과 원형의 다양한 형태의 곡선미로 현대적인 건축미를 한껏 살린 것이 딱 인상적이었는데 바로 이 거리에 경성유치원이 자리잡고 있었다.

두팔을 활짝 펴고 따듯이 안아주는 어머니의 품을 연상케 하는 경성유치원 앞 정문에서 현숙해보이는 녀성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우리가 유치원에서는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을 많이 키워내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에서는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을 많이 키워내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에서는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을 많이 키워내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꾸러진 우리 유치원을 남편님 찾아주시고 멋진 영이유치기재들과 함께 손공

신동들이 자란다

많은 나라들을 다녀보아도 이곳 유치원처럼 어린이들을 위해 국가가 막대한 투자를 한 유치원은 보지 못했다. 《우리 유치원에서는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을 많이 키워내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에서는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을 많이 키워내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에서는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을 많이 키워내고 있습니다.》

정치와 인민의 삶

정치는 인민의 리익을 지키고 삶을 돌보아주기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정치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은 아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고 있는 공화국과 달리 남조선에서의 정치는 특권 계급만의 리익을 옹호하고 절대다수 군로인민대중의 삶은 외면하고 있다.

민심을 외면하는 정치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나?》 얼마전 남조선의 보수야당의 한 《대선》 후보가 어느 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이를 두고 남조선언론들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않을테니 표를 달라는 기괴한 모순》이라고 법적 떠들었다. 어느 사람도 아니고 다음번 《대통령》을 하겠다고 경쟁무대에 뛰어든 후보라는 사람의 입에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않아야 한다는 너털리가 울려나왔으니 그가 찰 일이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망언이 공개적으로 울리는 남조선정계이다. 따지고 보면 남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인민들의 삶은 정치의 외면을 받고 있다. 력대로 남조선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국민을 위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듯이 별의 별 화려한 《공약》들이 울려나오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리행되어 인민들의 삶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 특히 보수야당이 《국민의 힘》은 언제 한번 인민들의 삶을 책임져본 적이 없고 오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정치

오늘 공화국에서는 인민들의 물질문명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이 당과 국가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리를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행복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되고 있다. 공화국에서 제시되는 하나하나의 로선과 정책은 어느 것이나 다 인민들에게 가장 존엄하고 행복한 생활, 이 세상 만물을 다 안겨주기 위한 멸사복무로 일관되어 있다. 공화국이 걸어온 지나온 날과 달들은 다 인민에 대한 이런 사랑과 믿음으로 훌륭하고 한해한해가 그런 사면들로 이루어졌다. 최근년간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공장들과 멋쟁이거리들, 문화정서생활기지들... 이 모든 것에 깃들여있는 소중한 정신은 무엇인가. 바로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이다. 인민의 아픔과 불행에 하루빨리 가서주기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고 나라의 재부도 통채로 기울이는 것도 이 땅에서만 찾아볼수

독재문밖

공화국에서는 원아들이 제일 훌륭한 환경에서 자라고있다는 것이 사실인가?

어느 나라에서나 접없는 아이들, 부모없는 아이들이 생기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다. 다른 나라들에서 부모없는 아이들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어두운 리면을 보여주는 존재》로 되고 있다. 하지만 공화국에서는 부모없는 아이들이 국가의 온갖 보살핌속에 제일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배우며 자라고 있다. 예로부터 부모없는 아이들은 고생속에서 남달리 일찍 철이 든다고 하였지만 공화국에서 부모없는 아이들은 행복속에서 남달리 일찍 철이 든다. 이 땅의 곳곳마다에 훌륭하게 일떠선 육아원과 예육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들에 가면 나라의 혜택속에 건강하고 훌륭하게 성장하는 원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낱아준 부모는 결을 떠났어도 원아들에게는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살뜰히 돌봐주는 많은 엄마들이 있다. 잠재워주는 엄마, 밥먹여주는 엄마, 아를세라 보살펴주는 엄마 등이 있어 엄마없는 설움을 모르고 자란다. 모든것이 최상의 수준에서 마련된 예육원과 육아원에서 원아들의 보육과 교육요양, 성장발육, 지능개발과 체력강화에 도움을 주는 하루일과들이 진행된다. 마스한 잠자리에서 일어나 재미나는 음악에 맞추어 체조를 한 후에는 맛있는 식사를 하고 훌륭히 갖추어진 놀이장에서 마음껏 노는다. 각이한 모양의 미끄럼틀들, 여러가지 인형, 지능놀이감 등이 가득한 실내놀이장의 여기저기에 넘치는 원아들의 웃음소리... 원아들이 기다리는 우리 말공부, 노래공부, 춤공부 시간도 서로서로 지지 않으려는 은근한 승벽심속에 즐겁게 흘러간다. 이뿐이 아니다. 식사시간이면 원아들은 붉은색살튀김, 칠감상어젼, 칠색송어젼, 송어랑을 비롯한 영양가 높은 음식들을 골고루 먹는다. 햇빛받는 곳곳마다에 훌륭하게 일떠선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도 이와 다를바 없다. 다기능화, 정보화된 교실들, 정보기술학습실, 외국어학습실, 각종 동물표본과 박제품들, 다기능체육홀 그리고 아늑한 침실과 화장장, 세면장, 연희장을 방불케 하는 식사실이 있는 학원에서 원아들은 자기의 재능과 꿈을 마음껏 꽃피우고 있다. 평양육아원과 예육원을 돌아본 한 외국인은 《부모없는 아이들은 이런 훌륭한 곳에서 살고있는 것이 실로 놀랍다. 설사 천부모가 있다 해도 가난하면 불우한 운명을 면할수 없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실상이다. 이곳의 원아들은 다 천사들이다.》라고 부러운 감사를 표하였다. 세상사들 누구나 부러워하듯이 공화국에서 모든 원아들은 따사로운 해님의 사랑속에 기쁨과 행복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민족의 명산 (II)

백두산



으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땅의 모든 산출기물이 백두산에서 뿔어내렸다고 하면서 백두산을 조종의 산으로 일러왔다. 백두산은 광강도 삼지연시의 북서부에 위치하고있으며 넓은 용암대지위에 높이 솟아있다.

명산중의 명산인 백두산은 조선혁명의 깃을 올린 때로부터 20정상 백두의 협산준령을 넘고 혈전만리를 헤치며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해방을 안아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가 깃들어있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있는 민족의 성산, 혁명의 성산이다.

백두산은 해발 2 750m의 장군봉과 2 712m의 향도봉을 주봉으로 하는 수많은 봉우리들로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재와 그 가운데 자리잡은 천지로 이루어져있다.

백두산의 명산적가치는 유명한 백두산천지를 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화산활동으로 생겨난 자연호수인 백두산천지는 면적 9.16km, 최대깊이 384m, 둘레 14.4km, 길이 4.6km, 너비 2km이며 호수면의 해발높이는 2 190.15m이다.

지구상에는 크고작은 호수들이 많고 많지만 백두산천지처럼 이처럼 높은 곳에 있는 깊은 호수는 없다.

백두산천지에는 1m씩 뛰엄없이 퍼내도 수십년간이나 퍼내야 할 정도의 맑고 깨끗한

물이 차넘치고있다.

백두산에 올라 천지물을 마셔본 해외동포들은 정말 맑고 깨끗하다, 영원히 마를 줄 모르는 천지의 물은 우리 민족에게 활력을 주는 조선의 생명수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여러차례의 화산분출과 그 진화발전과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백두산의 자연환경은 매우 특이하다.

그중에서도 백두산의 해돋이는 그 어디서나 볼수 없는 황홀하고 아름다운 해돋이로서 제일가는 경치로 되고있다. 백두산에서는 하루에도 몇번의 천지조화가 일어난다.

기후대별오소에 따르는 식물종구성상태가 다양하며 엄혹한 기후와 지질 및 지리적환경에 적응된 짐승류, 새류를 비롯한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이 많아 자연동물원을 방불케 하는 백두산지구는 1989년 4월에 유네스코의 국제생물권보호구역로 등록되었다.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하여 남해가의 구재봉까지 백두대산줄기가 뻗어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 겨레가 대대손손 살아온 이 땅이 조종의 산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하나의 지맥으로 이어져있는 하나의 강토이며 우리 민족은 하나의 강토에서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창조하면서 살아온 민족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본사기자 김진혁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아시아 및 세계 새 기록보유자 김성국



2019년에 제14차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가 진행되었다. 3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는 930여명의 우수한 남, 녀 선수들이 참가한 선수권대회는 올림픽경기대회 참가자격쟁탈전을 동반한것으로 하여 관심을 모았다.

제14차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압록강국방체육단의 김성국선수는 남자10m 공기권총사격경기에서 2명이었다.

한행은 세계 새 기록보유자인 다른 나라 선수였고 다른

한행은 공화국의 김성국선수였다. 이런 경우 점수차이가 날 때까지 경쟁을 벌려야 했다. 과연 승부는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첫번째와 두번째 경기점수는 같았다. 그러나 세번째 경기에서는 승부가 결정되었다.

김성국선수가 세계 새 기록보유자보다 더 많은 점수를 기록한 것이다.

그 기록은 아시아 및 세계 새 기록으로 되었다.

그는 우승후보자로 지목되었던 세계 새 기록보유자를 누르고 아시아선수권을 보유하였을뿐 아니라 아시아 및 세계 새 기록보유자의 영예를 지니었다.

그는 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 중의 한명으로 선정되었다.

본사기자

개화발전하는 민족교예

《널뛰기》, 《바줄타기》, 《상모놀이》, 《말타는 무사들》...

공화국에서 널리 장려되고 있는 민족교예종목들이다. 공화국인민들은 다른 교예종목들보다도 민족교예종목들을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

전통적인 민족교예종목들에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민족의 넉과 기상, 우리의 고유한 생활감정이 깃들어있기 때문이다.

국립교예단의 박소연연출가는 《민족교예작품은 주제교예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개화발전하여온 우리의 민족교예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주제교예로서 세상에 그 이름을 떨치고 있다.》고 말하였다.

주체성, 민족성을 적극 살려나가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우연하지 않다.

국립교예단에서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널뛰기종목을 비롯한 민족교예종목들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널뛰기종목에 출연하는 최은옥배우는 《작품창작을 위해 력사자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였다. 훈련이 힘들지만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빛내어간다는 긍지로 가슴이 부들부들해진다.》고 자기의 심정을 피력하였다.

본사기자 한일혁



천연기념물 용진왕삼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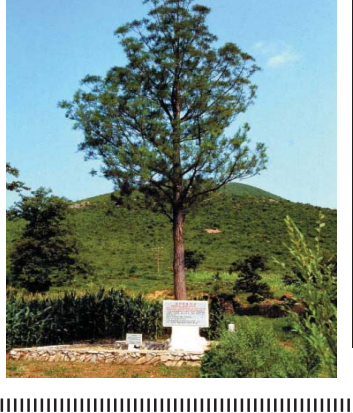
용진왕삼나무는 황해남도 용진군에 있는 용진식물원에서 자라는 나무이다.

용진왕삼나무의 높이는 29.7m이고 뿌리목둘레는 1.79m, 가슴높이둘레는 1.2m이며 나무갯너비는 4.2m, 나

판심을 모았다.

제14차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압록강국방체육단의 김성국선수는 남자10m 공기권총사격경기에서 2명이었다.

한행은 세계 새 기록보유자인 다른 나라 선수였고 다른



삼천리금강산

조선은 예로부터 산천이 비단에 수를 놓은듯이 아름답다는 의미에서 금강산으로 불리워왔다.

이 땅에는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철보산, 구월산, 지리산, 한나산을 비롯하여 그 어디나 수려한 산이 있고 넓고 비옥한 들이 있으며 맑은 강하천과 무성한 숲이 많다.

본사기자

사랑하노라 (4)

글 럼 예 성, 그림 김윤 일

그는 격분한 나의 눈빛을 처음으로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자기의 심혈이 깃든것이 그때문에 반드시 써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강요할 권리가 동무에게 없습니다. 난 동무가 눈을 높이길 바랍니다.》

《눈이요?...》

온몸에 일어나는 오한을 억제하지 못해 목소리가 떨렸다.

《어떤 눈말인가요? 우리것보다 외국제를 더 높이 보는 그런 눈말인가요?》

내 말에 그는 흠뻑 흘렸다. 나의 찰찬한 눈빛에 모욕을 느낀듯 했다.

몇초동안 폭풍을 배태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묵묵히 서있던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나가버리고말았다.

실례에 혼자 남은 나의 눈앞에는 지금의 그의 모습이 아니라 4년전의 수수하고 소박한 대학생의 얼굴이 나타났다.

집안의 외동딸로 부모님과 파 친척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내가 멋진 수입제학용품을 자랑하며 쓸 때 나의 뒤척상에 앉은 정인은 군가방공장에서 생산한 수수한 가방과 학습장, 원주필을

했는지.

어느날 항상 조용하던 뒤척상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는것을 들은적이 있었어. 《정인동지, 이젠 우리 동무네 아버지가 외국출장기념으로 준 원주필인데 쓰십시오.》

정인동지의 말이 한동안 대답이 없었다.

대체로 조용한 사람들이 그러하듯 정인도 불필요한 말은 웃음으로 처리해버리곤 하였으니까. 하지만 이번만은 웃음이 아니었다.

《고마워, 한테 난 내가 쓰는게 좋아. 우리 고향에서 만든것이니까.》

《?...》

조용한 그 말이 웬 일인지 내 가슴을 울렸었지. 수수하면서 자존심을 지킬줄 아는 사람.

그의 실력은 인정하기 싫어도 그 자존심만은 높이 사고싶었던 나였다.

그런데 동무는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동문 나의 창조물을 부정해버리면서 자기자신도 부정해버렸다는걸 아나요? 그토록 이 땅의 모든것을 사랑할 줄 알던 그 심장을 말이 예요. ...

하루종일 우리사이에는 단 한마디의 대화도 오고가지 않았다.

그보다 조금 늦게 퇴근하던 나는 분석소앞에 서있는 그 사람을 보았다.

눈부시게 하얀 목달개와리 한점없이 반짝거리는 까만 구두가 눈에 띄우는 바로 그 사람이 웬 처녀와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하얀 양복을 입고 굴실굴실한 머리를 내리드러운 처녀는 무척 아릿답고 순진해보였다. 무슨 말을 했는지 처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손으로 입을 가리고 수줍게 웃었다.

이상한 아픔이 온몸으로 퍼져갔다.

《유정동무, 정인동무가 어떻소? 내가 소개해줄까?》하고 소장이 어찌 웃으며 하던 말이 떠올랐다.

아니, 난 사양할거야. 한번도 저런 사람을 사랑할수 있다고 상상해본적이 없다.

어째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것이다. 허영에 뜬 인간!...

《뭘 생각하길래 앞에 있는 사람도 못 보요?》

눈앞에 재색의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대학생꼴 담담선생님이 서있었다. 머리에 흰머리가 내렸어도 단정하고 사색적인 그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정인동지를 만났을가? 나처럼 실망하셨는지? 그는 자기가 얼마나 많은

가 생기면 힘든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던 존경하는 나의 선생님이였다.

《정인동무가 실장으로 왔나?》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키운 제자들중에서 제일 쟁쟁한 인제라고, 오늘은 처녀실장이 되고 매일엔 처녀원사가 되라고 등을 두드려주던 선생님이였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던 말인가? 선생님은 말없이 나의 눈을 찬찬히 들여다보시였다.

맑고 정직한 선생님의 눈동자에 나의 피로운 눈빛이 그대로 비쳐지는듯 해서 두려웠다.

선생님은 언제나와 같이 말없이 나를 바라워주었다. 변함없는 기대를 느끼며 나는 걸어들었다.

선생님은 정인동지를 만났을가? 나처럼 실망하셨는지? 그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있는지 알까?...

분원에서는 그의 무엇을 보고 실장으로 추천했을까? 외국유학생이어서?...

나는 저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었다.

다음날 정인은 출장을 떠났다. 한달이나 걸리는 장기출장이였다.

3

《아니, 넌 선을 보라는데 왜 그렇게 싫다는거냐? 파마약이 성공한 다음에 보자는

걸 손꼽아 기다리다가 이 엄마 머리가 회색구나.》

어머니의 푸념에 나는 조용히 웃었다.

엄마, 이 파마약의 성공을 엄마보다 더 손꼽아 기다리는 분이 있다는걸 아시나요?

우리의 결 에 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인 우리 파마약을 빨리 성공시켜야 한다고 벌써 두차례나 말씀하셨어요.

우리 녀성들을 우리의것으로 더 아름답게 가꾸어주자고, 그래서 우리 거리가 밝아지고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우리 레일이 더 밝아지게 해야 한다고...

이 작은 파마약 하나에도 사랑이 있다는걸 엄마 모르지요? 뜨거운 사랑이...

이제 성공한 다음엔 엄마가 하자는대로 다 할게요. ...

나는 아직 벌이 총총한 새벽에 집을 나섰다.

고요한 거리에는 누구도 없었다. 이럴 때 함께 걸어줄 사람이 있다면...

문득 그런 사람을 상상해보았다.

그는 분명 나보다 더 훌륭하고 멋있겠지. 인생의 먼 길을 중요없이 걸어갈수 있는 강한 의지와 풍부한 지성의 소유자... 그는 어디에 있을까?...

새로운 보조제를 도입한 마지막실험이 드디어 끝났다. 출장길에 올라 전국각지를 돌며 대대적인 파마약도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깨끗이 처리한 나는 기쁜 마음으로 연구소로 돌아왔다.

경주 첨성대

우리 선조들은 7세기 전반기에 세계에서 이름있는 천문대인 경주첨성대를 건설하여 기상학과 천문학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경주첨성대는 안정되고 아름다운 곡선을 이루도록 하였을뿐 아니라 돌사이에 아무런 짐작제도 쓰지 않고 쌓아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고있다.

첨성대의 높이는 약 9.1m이다.

기단의 평면은 방형으로 생겼고 그 한변의 길이는 약 6m이며 네면은 동, 서, 남, 북의 방위를 정확히 가리키고있다. 가로자름면이 둥근 몸체는 기단의 중심에 놓였다. 몸체의 밑직경은 약 4.9m, 위의 직경은 약 2.9m이다.

몸체의 룰락선은 처음에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차츰 몸체의 통이 좁아지면서 곡선으로 올라갔다. 첨성대몸체의 이러한 곡선은 첨성대와 같은 좁고 높은 구조물을 들로 쌓는 경우 자기 질량과 바람의 힘을 다같이 옹기 타산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서 구조물을 매우 튼튼하게 한다.

본사기자

○ 속 담 과 뜻 ○

◆정직한 사람의 지식은 굵어죽지 않는다.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하면 남의 사랑을 받고 동정을 얻게 됨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내 물건이 좋아야 값을 받는다. 재물이 몇몇해야 남에 대해서도 몇몇하다는것을 이르는 말.

◆눈앞에서 자랑 말고 뒤에서 꾸짖지 말라.

